

농축산 미생물 산업 우리가 이끈다

정읍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제품 시험분석·인증기관 자리매김

정읍시 신정동 연구개발특구에 소재한 (재)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가 미생물 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며 미생물 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다.

신정동 연구개발특구에 위치한 미생물 산업육성센터는 지난 10일 '2021년 농축산용 미생물 효능평가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열고 미생물산업 육성과 고도화를 위한 산·학·연·관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진청, 전북대학교, 기업체 등 농·생명 산업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정읍시에 따르면 2017년 개소한 미생물 센터는 전국 220여개 이상의 농축산 미생물 제품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효능검증과 대량 배양, 산업화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미생물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로 미생물 제품의 안전성 평가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는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기체크로마토그래피 등 23종의 복합 미생물 안전성 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토대로 국내 기업 미생물 제품의 효능평가와 안전성 평가, 산업화를 지원하며 국내 유일의 농축산용 미생물 제품 시험분석·인증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재)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는 지난 10일 '2021년 농축산용 미생물 효능평가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열고 미생물산업 육성과 고도화를 위한 산·학·연·관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정읍시 제공>

보고회 이후 사업장인 (주)에코비즈넷을 방문해 준공을 축하하고, ㈜정농바이오 시설과 피에스비바이오(주) 시설을 찾아 견학하는 시간도 가졌다.

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10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과 연계해 ▲핵심 기술 개발 ▲빅데이터 ▲인프라 ▲그린바이오 사업화 전주기 지원 ▲그린 바이오 융합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kwangju.co.kr

순창, 2차 '유용미생물은행' 착공...미생물 산업화·자원화 나서

순창군에 아시아 최초 '유용미생물은행'이 들어선다. 이 기관은 농·축산에서부터 식품산업에 이르는 미생물 자원을 통합·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유용미생물은행 건립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순창군 민속마을 내 7847㎡의 부지에 총 3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진행된다. 연면적 7954.87㎡, 지상4층 규모로 2023년 5월 준공 예정이다. 운영은 2023년 하반기부터로 계획돼 있다.

유용미생물은행은 실물 자원을 수입·보존하고, 유전체 데이터 기반 융복합기술 개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다.

유전체 분석장비, 자원보존시설, 세포실험실 등 연구시설 장

비구축을 통해 분야별 생물자원의 분양 및 데이터 기반 마이크로바이옴 융복합 기술개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사업 목표는 농업 미생물의 자원화·산업화다. 이후 인간의 만성질환을 치유할 수 있는 미생물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순창군은 시범사업으로 농업 토양과 식물자원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자원화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유용미생물은행은 순창의 발효미생물산업을 한 단계 성장시킬 사업이다. 그 만큼 은행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단순히 연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된 미생물자원을 산업화 할 수 있는 시설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장영근 기자 jyg@kwangju.co.kr



유용미생물은행 건립사업 기공식이 지난 10일 순창군 투자선도지구에서 열렸다. <순창군 제공>

익산시, 오늘부터 요소수 탄력적 판매

화물·건설기계 10L·승용차 5L 홀짝제 운영

익산시가 요소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직접 판매 시 개별 구입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익산시는 개별화물과 건설기계는 구입량을 10리터, 승용차는 5리터로 일괄 조정해 운영한다. 개별 화물과 건설기계는 주 1회 구입 가능하며 승용차는 최초 1회만 구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구매 인파가 일시에 몰리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홀짝제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승용차에 대한 요소수 판매는 오는 15일부터 개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2일부터는 요소수 주입기를 통한 판매 방식으로 전환되며 구입을 원하는 시민들은 용기

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앞서 시는 지난 9일부터 요소수 품귀 현상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해 호남 유일의 차량용 요소수 생산업체인 (유)아톤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일일 한정된 물량에 한해 직접 판매를 시작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요소수 품귀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제조업체 사정 상 일일 판매 물량이 한정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며 "탄력적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고창 편백숲 사이로

군, 1km 산책로 조성

고창군이 고창읍 덕정리에 편백숲 테마 산책로를 조성했다.

약 1km 구간의 산책로는 데크 로드와 보행 매트, 돌계단 등이 설치돼 다양한 분위기를 느끼며 걸을 수 있다.

군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3곳에 진입로를 설치했으며, 보행이 어려운 계층이 차량을 이용하고 갈 수 있도록 중앙부 진입로는 5m로 넓게 조성했다.

산책로 곳곳에 정자와 벤치 등도 설치해 주민들이 대화하며 산책을 즐길 수 있게 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새롭게 조성된 산책로에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주 기자 khj@kwangju.co.kr



고창군 고창읍 덕정리에 조성된 편백숲 산책로.

군산시, 안심식당 스티커 부착·위생용품 지원

군산시는 올해 새로 지정된 120곳의 안심식당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정 표지(스티커)를 부착하고 각종 위생용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들 음식점은 ▲음식 떨어 먹기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시설 또는 손 소독 장치(용품) 비치 등 코로나19 생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곳이다.

시는 안심식당에 앞접시, 국자, 집게, 손 소독제,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안심식당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외식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대비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박규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지리산 단풍 속으로

남원시는 뱀사골 일대의 아름다운 단풍을 감상하는 '지리산 뱀사골 단풍길 관광버스'를 12월부터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원 광한루원을 출발해 지리산에서 자생하는

남원시, 뱀사골 관광버스 운영

참가비 없이 하루 20명 한정

허브 자원을 모은 운봉의 허브밸리, 흥부골 자연휴양림에 있는 드라마 '지리산' 세트장, 뱀사골을 둘러보는 코스다.

버스에는 문화관광해설사가 탑승해 관광객의

숨은 이야기들도 들려준다.

월요일과 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후 1시에 운영을 시작한다. 하루 선착순으로 20명을 모집하며 참가비는 없다.

남원시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증가하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남원의 주요 관광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